

I. 제목

소선지서 중에서 8 번째 책인 하박국은 히브리성경의 하박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뜻은 꺾어 앉는 자, 매어 달리는 사람이란 뜻이다. 하박국이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II. 저자와 저작 연대

1) 저자: 선지자 하박국이다.

고대 유대의 랍비들은 하박국이 왕하 4:16 의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된 수넬 여인의 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세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하박국은 3:1, 19 에 근거해 볼 때 레위지파의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는 신앙적인 회의가 많아서 구약의 도마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2) 저작 연대: 저작 연대는 주전 610 년 경, 주전 612 년-605 년 사이로 본다.

본 서의 저자인 하박국에 대해서는 내적인 증거로 밖에 추론할 수 없다. 그가 사역한 시기는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막강한 세력임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합 1:6-10)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을 위해 일한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는 아마도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박국 3 장은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시이기 때문이다.

III. 하박국 서의 구성

하박국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증거를 가진 대화체와 찬양시로 구성된 지혜문학 형식의 예언서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1-2 장) 과 2) 하박국의 찬양 (3 장)으로 나눈다. 다시 1)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1) 하나님의 첫번째 질문 (1:1-4), (2) 하나님의 첫번째 응답 (1:5-11), (3) 하박국의 두번째 질문 (1:12-), (4) 하나님의 두번째 응답 (2 장) 으로 나눈다. 또한 2) 하박국의 찬양은 (1) 하나님의 위엄 및 능력을 찬양하고 (3:1-15), (2) 구원의 확신과 환희 (3:16-19) 로 구분한다.

IV. 하박국서의 특징과 목적

1) 하박국서의 특징

본 서의 특징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대화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다섯 가지 조롱 섞인 죄악이 나열되고 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하시고 다시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말을 하는 과정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인 3 장은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찬양시로 끝맺고 있다. 그리고 본 서의 내용이 신약에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서의 내용의 전개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즉 슬픔과 불평으로 시작한 하박국은 이제 기쁨과 감사로 본 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인의 위대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하박국서의 목적

하박국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강대국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 (합 2:4)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기 위함이다. 하박국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박국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한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의인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악함을 보시고 결코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V. 하박국서의 나타난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은 매우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시기에 걸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와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가 다양하게 역사 속에서 펼쳐짐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 하나님을 공의로 열방을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의 손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1) 구원론적 측면: 중심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이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득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신득의의 교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 사상이다. 루터는 이신득의의 사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구약 본 서만큼 분명한 어조로 이신득의를 강조하는 책은 없다.

2) 예수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였던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서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선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VI. 하박국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는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있음을 보여 준다 (롬 3:28 ; 엡 2:8).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교리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으며 성도들이 실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참생명의 원천이다. 특히 성도들은 곳곳에서 악이 선을 이기고 의인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 2) 핵심 절: 2:4
- 3) 핵심 장: 3 장

VII. 하박국서의 주제들

- 1)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에 대하여 선지자는 회의를 표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 2)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그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이다.
- 3) 불의한 자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 4)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불의한 자들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 5)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